FTA 동향

- 케이(K)-지게차, 계속되는 수출 신기록
-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 지역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 국가별 동향: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관봉쇄'란 무엇인가

REPORT

케이(K)-지게차, 계속되는 수출 신기록

'23년 1~5월 지게차(forklift) 수출은 5억 2천 5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56.8%↑)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21년, '22년 연이은 최대 수출기록 경신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년 4억 8천 5백만 달러(전년동기대비 △25.5%↓)로 감소한 수출이 '21년 반등하며 최초로 7억 달러 돌파하였고, '22년에는 9억 달러 돌파하였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파른 수출 증가세[1]로, 역대 최대 연간 수출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은 수직 상승하는데 수입('23.1~5월 119백만 달러, △4.9%↓)은 감소, 올해 무역수지 또한 최고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에 따른 자국내 공장신설 등 산업현장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공급망 재편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봉쇄로 인한 물류, 생산 차질 등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리쇼어링'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외국으로 진출했던 제조, 물류 거점이 자국으로 복귀되고 있다[2].

이러한 시점에 지게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 구축에 필수장비인 지게차 수요가 늘면서 우수한 우리나라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품목은 '23.1~5월 수출액 기준, 엔진차량(비중 75.9%) > 전동차량(20.8%) > 기타(3.3%)[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1~5월) 모든 종류의 지게차 수출액이 동기간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엔진차량 수출 선전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1 1~5월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1년 19.1 → '22년 25.7 → '23년 56.8

2 국제경영개발원(IMD, 'The local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amid pandemic', '20.11월)

3 지게차를 동력에 따라 '엔진차량(연료)'과 '전동차량(배터리)'으로, 그 외 무인운반기 등은 '기타'로 구분

올해는 전 품목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창고 등 실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엔진(소형) 및 전동차량이 수출을 견인하였다.

전 품목 고른 수출 성장세로, 올해 연간 최대 수출기록을 전망하였다. 역대 최대 수출규모 성장(수출액 증가폭)으로 최고 수출 기록을 기대하였다. 작년 12월 월 수출액이 최초로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올해는 이미 3개월(3월, 4월 역대 최대, 5월) 연속 1억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올해 세계 수출 경쟁에서 선전을 기대한다. 국가별로는 '23.1~5월 수출액 기준, 미국(비중 70.5%) > 중국(5.2%) > 벨기에(3.4%) 등 93개국에 수출하였다.

코로나 전(~'19년) 이미 180개국 진출한 케이(K)-지게차, 이후에도 수출국을 늘려[4], 현재('00년~'23.5월)까지 전세계 183개국에서 활약하였다.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에 따른 공장건설 붐[5] 등으로 '21년부터 매년 수출이 급증하였다. 올해(1~5월) 미국 수출은 이미 코로나 전('19년) 연간 수출을 상회, 같은 기간('19.1~5월) 대비로는 2.3배 증가한 규모이다.

중국, 캐나다 등도 역대 최대실적으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지게차 수출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1~5월
지게차	485 (△25.5)	709 (46.3)	948 (33.7)	525 (56.8)
엔진차량	344 (△31.7)	513 (49.1)	738 (43.8)	398 (60.6)
소형 (적재중량 3톤이하)	158 (△25.1)	240 (52.4)	368 (53.3)	213 (85.5)
중대형 (적재중량 3톤초과)	187 (△36.4)	273 (46.3)	370 (35.5)	186 (39.2)
전동차량	132 (△1.8)	181 (37.0)	168 (△7.6)	109 (54.3)
기타(무인운반기 등)	8 (△31.5)	14 (82.7)	43 (194.3)	17 (8.1)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4 보네르, 세르비아, 퀴라소

5 인사이더('The US is building factories at a wildly fast rate', '23.6월)

관세청,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 의사 밝혀

고광효 관세청장은 7.26(수,16:30~17: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6]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가입인구(12억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7]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8]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 청장은 "자유무역협정 국가별,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고, 원산지 관련 서류도 복잡하여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프리카 국가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를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6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21.1.1. 시행)은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6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7 협정이 시행됐으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 확정이 어려워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한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가 참여하여 시범운영 중('22.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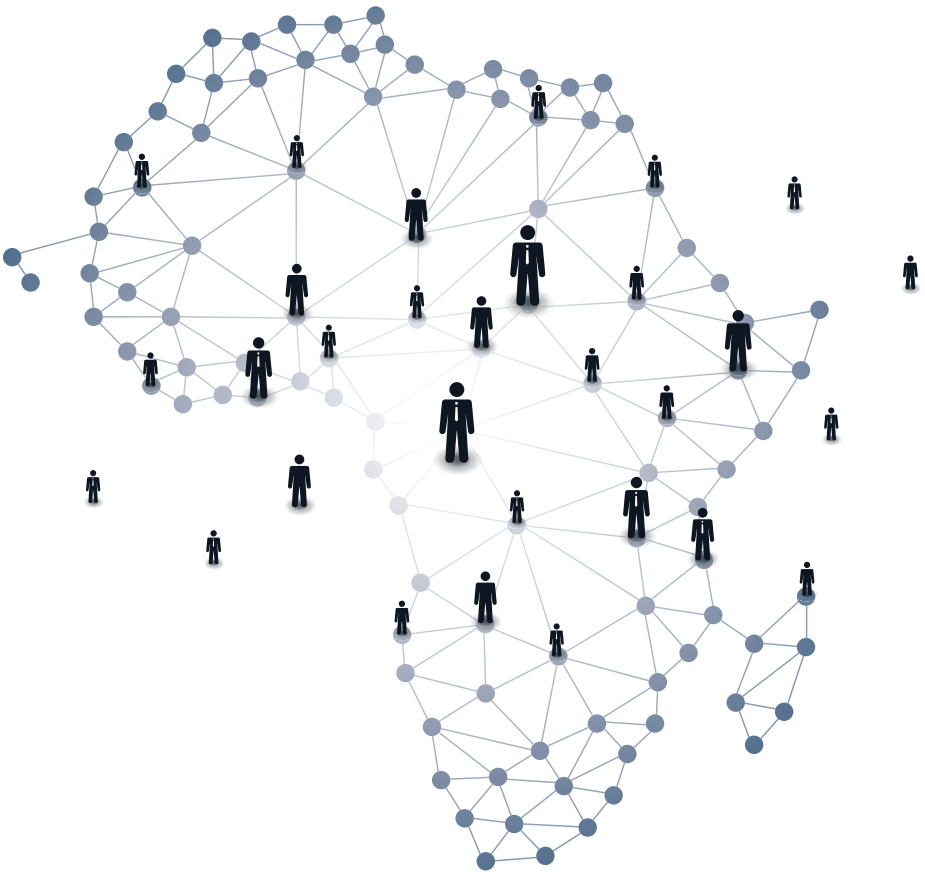
8 수출입 화물이 최초로 권역내 도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무역서류의 제출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 가속화와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프리카에 맞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하여 연구조사를 거쳐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확보에도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아프리카에 '11년 탄자니아를 시작으로 '22년 마다가스카르까지 총 6개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고, 14개 국가에 세관현대화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상반기 케이(K)-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 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입(30백만 달러, 7.5%↑) 역시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천 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백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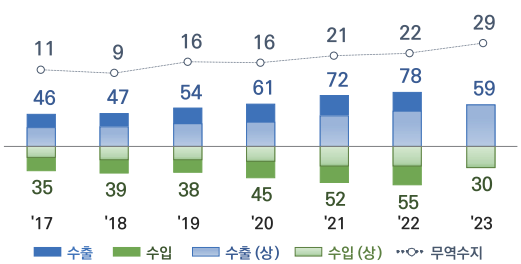
무더위를 식혀줄 간식이 필요한 때 한국문화 인기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손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수출물량(18천 톤)은 아이스크림(개당 75g 기준) 약 2억 4천 만개 상당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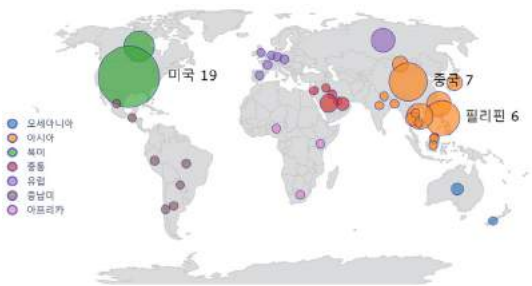
한국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은 중국, 필리핀 등의 순이다. '23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비중(%): 미국(31.6), 중국(12.2), 필리핀(10.3), 캐나다(7.9), 베트남(5.7)순이다.

코로나에도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지난해 최다인 54개국, 올해 상반기는 반기 최다인 49개국으로 수출했다.

【수출입 현황(백만달러)】



【'23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 현황(백만달러)】



49개국, 59백만달러 수출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관세청은 8월 29일(화)과 8월 31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 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9]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 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10]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11]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하였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9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10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11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올해 1월 한-인니 CEPA 발효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 카카오톡(문자)으로 납세정보 알림-

관세청은 오는 9.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12]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13]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 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14]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12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13 해외직구 현황(만건) : ('20) 6,357 →('21) 8,838 → ('22) 9,612

14 은행 로그인 → 공과금 메뉴(관세선택) → 납부서 번호(19자리) 입력 → 세금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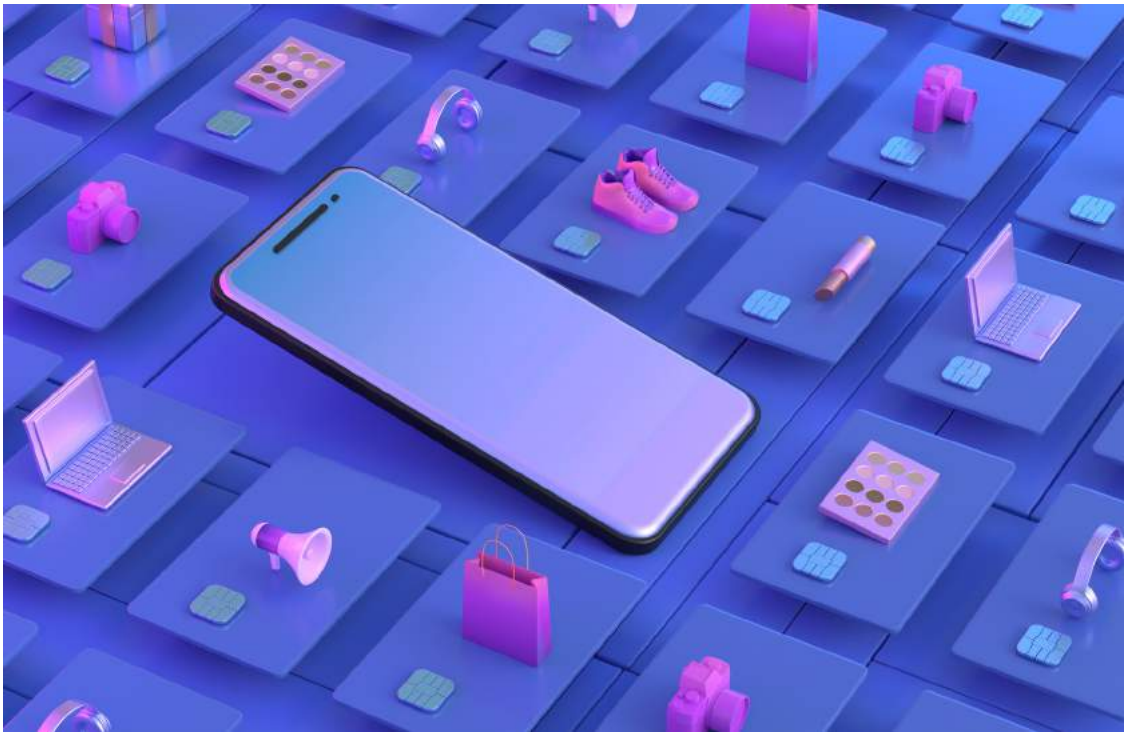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15]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❷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 할 세금내역 조회

❸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 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❹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15 수입신고서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된 납세자 휴대폰번호

통상협정 내 신통상 규범 동향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중 코리아나 호텔에서 최근 주요국 간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신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영-호 자유무역협정(FTA)('23. 5. 발효) 등 사례에서 보듯 최근 체결되는 주요국 간 통상협정 내 노동, 환경 등 분야가 독립적인 부분(챕터)을 구성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논의되는 신통상 규범을 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통상협정 추진전략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은 "지난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에서도 노동, 환경, 포용성 등이 주요 협상 분야로 다루어졌다."라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내에서도 관련 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점적으로 논의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등 주요 협상에서 우리 정부·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지역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 플러스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금)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4대 수출시장 중 대(對) 중국(△26.0%)·아세안(△20.4%) 수출은 20% 이상 감소하였고, 대(對) 미국(0.3%)·유럽연합(EU)(5.7%)은 소폭 증가하였다.

중국은 정보기술(IT)업종을 중심으로 대(對)세계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39.8%)·디스플레이(△47.9%)·석유화학(△23.9%)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우리 기업의 전자제품 국제(글로벌) 생산기지가 밀집한 베트남(대(對) 아세안 수출의 48.3%) 수출 또한 정보통신(IT) 업무 현황 부진으로 반도체(△29.1%)·디스플레이(△17.0%) 수출이 급감하였다.

한편 미국·유럽연합(EU)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美54.2%, EU55.6%)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로 일반기계(美4.1%, EU8.7%)·양극재(美28.6%, EU92.3%)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지역별 수출 흐름과 여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출기회를 새로 마련하고, 주요국과의 정부 간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 세일즈 외교(경제 외교)를 통해 발굴한 수출·수주 사업(프로젝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수출확대인 만큼, 신흥국들과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지 진출 애로를 자세히 점검(모니터링) 및 해결해 나가고, 디지털 경제·저탄소 친환경 등 신(新)통상 현안(이슈)도 새로운 수출 기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별 동향 : 중국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급성장

▶ 중국 2차전지 소비량 세계 최대 규모, 2026년부터 배터리 퇴역량 급증

중국 전기차 시장은 2014년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시행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으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 전기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706만 대, 689만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96.9%, 93.4% 성장했다.

2차전지는 주로 인산철리튬과 삼원계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전기차가 대량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2차전지의 평균 수명(5~8년)을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배터리 퇴역이 본격화돼 2026년에는 150GWh, 2032년에는 1TWh까지 배터리 퇴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2035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CAGR)은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축돼있는 국가는 일찍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중국 정부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 부처 주도로 2018년부터 폐배터리 활용 방안 등 신흥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정책으로는 2023년 3월 중국시장관리 감독총국과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신에너지차 동력배터리 순차이용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 공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은 2차전지 소비량이 전 세계 60%이상을 차지하는데, 소비량 대비 자국 내 광물 발굴 및 매장량이 충분치 않아 2차 전지의 주요 원자재(리튬, 코발트 및 니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폐배터리 추출하고 재가공한 원료 물질을 통해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폐배터리 기업 간 경쟁 심화, 산업 투자 가속화

화안증권(华安证券)에 따르면, 중국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 1000억 위안에서 2030년에는 1,7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치차(爱企查)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국 내 폐배터리 관련 회사는 5만여 개사에 달한다.

현재 중국 폐배터리 관련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2차전지 제조사, 배터리 원자재 공급사 및 완성차 기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환바오짜이셴(中国环保在线)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중국에서 진행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프로젝트 규모는 1000억 위안 이상이며, 전기차 회수, 폐배터리 보관 및 분리, 재활용 가능한 원료 물질 추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해외 투자 동향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에 이어 올해 3월 EU에서도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며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친환경 산업 지원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도 해외기업과

합자 또는 단독 투자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중국-해외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미국, 유럽 지역 외에도 거린메이(格林美), 화여우구예(华友钴业)등 중국기업을 필두로 한국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P사는 중국H사와 공동 투자로 공장을 설립해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원료 물질로 니켈, 코발트, 탄산리튬 등 원자재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E사도 중국기업과 10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연간15만 톤 이상의 배터리 전구체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폐배터리 재활용 협업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시사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2차전지가 퇴역하면서 시작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이미 5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배터리 원자재 공급사-2차전지 제조사-전기차 완성차 기업-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기업'산업체인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기업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선도하는 기업이 딱히 뚜렷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시장 발전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신에너지 배터리 재활용협회(中国新能源电池回收协会) 관계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지난 2년간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며, 수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본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향후 산업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확실시되는 산업인 만큼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져 더 많은 기업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향후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관련 해외 기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기업도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과 산업 및 기업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폐배터리 산업체인별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료: 중국 신에너지 배터리 재활용 협회, USGS,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KOTRA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등[16]

1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pNttSn=204650

국가별 동향 : 중국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관봉쇄'란 무엇인가

▶ 개요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11개 분야, 총 39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했고 이를 통해 하이난을 여타 자유무역시험구 대비보다 더 높은 자유도를 자랑하는 자유무역항으로 만들 수 있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따르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무역자유화 및 투자 편리화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항 제도 및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성숙하게 업그레이드하고 2050년까지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 구축 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기초적인 토대는 2025년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무엇보다 충분한 관리감독이 실시돼 자유무역항 정책 시행과 대외개방 확대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하이난 "해관봉쇄"(封关运作) 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미 하이난 성정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해관봉쇄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해관봉쇄'(封关运作)란

해관봉쇄의 핵심은 크게 3가지, '대외개방(一线放开)',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 '하이난 섬 내 자유화(岛内自由)'이다. '대외개방(一线放开)'은 즉,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취지이다.

'내부관리강화(二线管住)'는 자유무역항과 중국 본토 간 적절한 관리통제를 실시해 자유무역항 정책 실시에 따른 중국 지역별 정책·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해외로부터의 상품·화물·선박 등의 하이난 입항은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지만 이러한 물품·선박의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의 이동은 일반적인 해관제도에 따라 관리·통제해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다만 관리대상은 주로 화물과 상품, 운송도구 등을 포함하며, 인적교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관봉쇄가 실시되면 하이난은 성 전체가 보세구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하이난 간 화물이 이동하면 수출입으로 간주된다.

하이난성 선전부 왕빈(王斌) 부장은 하이난은 이미 섬 전체에 걸쳐 해관봉쇄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까지 하드웨어 분야 준비가 완료, 2024년 기타 제반사항 준비 완료,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진 작업에는 HW·SW·항구 규획 및 건설 등 64개의 임무, 항구건설·해관검사시설 건설 등 31개 프로젝트, 각종 자유무역항 정책의 적합성 시험을 위한 27개의 스트레스 테스트(压力测试) 등 관련 작업 및 준비절차들이 포함돼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영관세로 하이난에 유입되는 외국 화물들로 인한 하이난 산업에의 영향 유무, 해당 화물들이 본토로 유입될 경우 본토 산업에 대한 영향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테스트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세제 개혁을 추진, 증치세를 폐지하고 매상세를 도입하되 몇 %로 책정할 것인지, 세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하이난 진출 시 승낙즉입제(承诺即入制)를 도입하되 리스크 감독관리 방안에 대한 준비사항도 포함돼 있다.

승낙즉입제란, 국가안전·사회안정·생태계 보호·공공이익 등 국가가 지정한 영역 외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현지정부의 허가 혹은 비안이 불요하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바로 투자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특히 금융 분야의 대외개방에 있어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 분야 리스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 분야 대비 더욱 크고 빠른 만큼 국무원과 중앙은행 등 핵심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난의 해관봉쇄는 하이난 섬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외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시장질서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기대효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은 유의미한 감독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섬 전체의 해관을 봉쇄하고 해관감독관리 특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관봉쇄 및 세수제도 개정 이후에는 지정된 품목 외에는 모두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자유무역항의 개방도를 더욱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 적용, 국경 간 자금이동 자유화 등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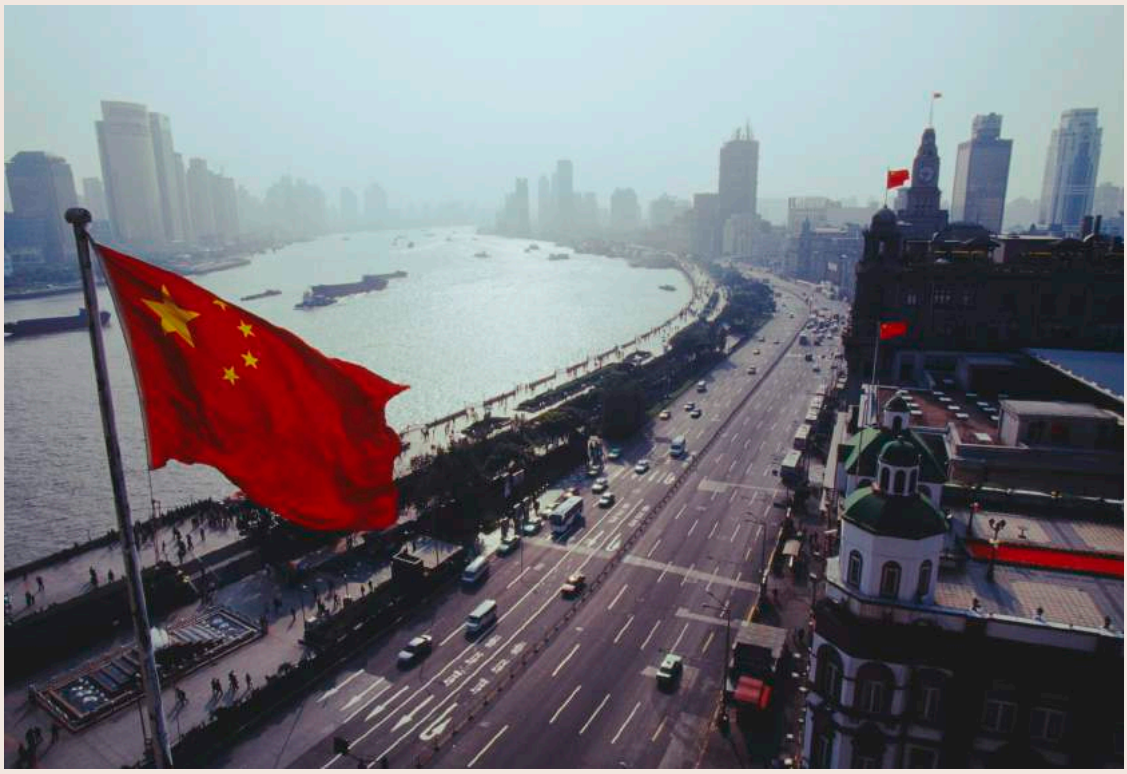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장젠핑(张建平) 부주임은 우대정책에 힘입어 하이난 특유의 현대 서비스업, 선진제조업, 농업 등 산업의 발전, 우수인재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라 이도면세 시장이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이도면세 시장은 이미 2021년 600억 위안 규모를 돌파했고 2023년 엔데믹에 따라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성장하며 반등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하이난 면세 소비시장 현황 및 추세(海南免税消费市场现状与趋势)" 보고서는 2025년까지 이도면세 시장이 1600억 위안 규모로 급성장하고 세계 최대 관광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자료: 중국재경보(中国财经报), 신화사(新华社), 하이난일보(海南日报), 하이난 자유무역항 홈페이지(海南自贸港), Vogue Business, 펑파이신문(澎湃新闻),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17]



17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2&MENU_ID=310&CONTENTS_NO=1&recordCountPerPage=10&pTmplateCd=NT0101&pDataId=205516&pStartDt=&pEndDt=&sSearchVal=&sGbnCd=&bbsSn=242&pUntyDsetId=&gbn=In&sSearchVal=